

2017. 11.11 연구회 자료

『글로벌위험사회』-chapter 5 세계여론과 글로벌 하위정치 또는 기후재앙은 얼마나 현실적인가

김현주(중원대)

*개요: 글로벌 위험사회가 가진 역동성의 여러 핵심중 하나- 생태학적 위기. 특히 기후변화와 다양한 결과를 다룸. 특히 논의 되는 주제-‘글로벌 위험사회’, not ‘자연’ ‘자연파괴’, ‘생태학’, ‘환경’ -> **생태학적 문제의 사회과학적 분석**을 위한 관점 제시

1. 사회과학적 접근-> 생태학적 문제를 사회의 주변 환경에서 나타나는 문제나 환경문제로 파악하지 않고 사회 안에 자리 잡은 세계 내적 문제로 파악: 자연, 생태학, 환경처럼 자명해 보이는 용어->사회적인 것으로 대체>리스크와 재앙, 부작용, 보장 가능성, 개인화, 세계화로 대체.

2. 글로벌 위험사회의 사회->세 가지 의미에서 성찰적;

1) 사회는 스스로를 주제로 삼는다. 글로벌 위험은 글로벌 협력을 장려한다.

2)문명의 자기위협이 지닌 글로벌 성격을 인식-국가정치를 활성화, 국제협력 제도를 만들어 발전시킬 수 있는 정치적 추진력이 제시: 예)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 고든 브라운; 기후 재앙 속에 숨어있는 정치적 사자를 발견->‘그린 영국’, ‘그린 자본주의’선포, -. 기후 변화가 경제에 끼치는 치명적인 결과를 인상적인 방식으로 경고한 ‘스턴보고서’를 토대로 구성.

3) 정치분야라는 것의 경계가 사라짐->그 결과 세계적이고 직접적인 하위정치의 상황이 나타남. 이 하위 정치는 국민국갓거 정치의 좌표와 제후를 상대화하고 무력화, 배타적 확산의 전 세계를 동맹화->글로벌위험사회의 어려움을 인식, 세계시민사회의 특성이 선명해짐.

* 생태학적 글로벌 위험사회 이론의 연관성

-자연가 생태학 개념의 미규정성-

1.생태학은 완전히 불분명한 개념->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에 모두가 답을 달리함.

자연-> 자연의 어떤 문화적 지표를 근거로 하는지를 밝혀야 함-> 즉, 제1현대화 (산업)에 흡사당한 자연? 산업이 자연에 개입해도 완전히 보상할 수 있다는 경영자들의 자연? 가장 작은 변화라도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친다는 예민한 자연 감화자들의 자연상?

생태운동은 자연과 사회의 모순적 융합이라는 글로벌 상태에 도전.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론적 관점은 고사 무엇인지도 전혀 알지 못함. 결국 사람들이 생태학적 논쟁 속에서 떠들썩한 소리를 내는 것은 자연상태를 자연 파괴에 대항하려는 척도로 사용하려는 시도, 그러나 사람들이 증거로 끌어대는 자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치적 맥락에서 나온 자연 파괴의 다양한 사회화 형태이며 자연의 문화적 개념 내지는 상반된 자연 이해와 국가별 문화적 전통들이다-> 결국 전문가들의 찬반양론과 기술적 공식, 위엄의 면 밑에서 전 세계의 생태학적 갈등이 결정됨.

2. 자연 그 자체가 생태학적 위기와 산업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면?-> 그 답은 1) 자연과학->부담과 파괴의 허용치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적 공식들, 즉 공기 중 오염물질, 물과 식료품, 기후 연구자의 모델, 생태 시스템 과학의 인지 과학적 피드백 나선등.

그러나 여기에는 세가지 걸림돌: a. 생태정치로 가는 지름길, b. 문화적 인지의 의미나 문화 상호 간의 갈등과 대화의 의미가 평가절하 되거나 배제. c. 생태학적 질문의 자연과학적 모델: 암묵적으로 자연에 대한 문화적 구상들, 즉 자연보호와 자연관과는 달리 시스템과학의 구상물이 들어있다.-> 사람들이 모든 기술을 동원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없음. 결국 기술적 혹은 생태학적 위험 진단으로는 인간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지를 진단할 수 없음-> 오히려 문화들 간의 글로벌 대상이 되어야 함.

2) 문화 과학적 시각: 이 시각은 생태학적 위기의 범위과 긴박성은 문화 내적인 그리고 문화 상호 간의 인지와 평가에 따라 변한다.

문제점: a. 모든 것을 사회적인 것으로 환원 리스트의 비물질성(사회 연출)과 물질성(물리적 변화와 파괴)이 병존하는 이중성의 특성을 간과 하는 사회학이 되어버림- 석기시대 인간은 핵이나 생태학적인 위기의식이나 그것으로 인한 자기 파괴의 잠재력을 갖지 못함.

* 현실은 서술되는가 아니면 허구적으로 구성되는가?-> 사실주의 와 허구주의는 논쟁야기-> **글로벌 위험사회의 이론은 여기서 출발함**-> 무엇이 글로벌 위험 사회의 개념을 정당화하는가? 두 가지의 시각이 대두.

1. 사실주의적 대답: 산업생산의 결과와 위험이 글로벌 현상이 됨-> '되었다' 는 자연 과학적 소견에 의거, 글로벌 위험사회를 인간에 의해 생산된 위험이 강요한 글로벌 사회로 이해-> 국제 공조와 국제 제도의 의미를 증대시킴. 즉, 글로벌 위험에 상응하는 것-> 글로벌 인지 방식과 포럼, 행동 포럼, 초국가적 행위자와 제도들-> 문제점

1). 사실주의적 시각의 타당성문제: 성찰적이지 못한 사실주의적 관점은 '사실주의가 파편화된 대중매체의 집단적의식이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생태학의 이미지나 상징들은 그 자체만으로 학문적 뒷받침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님. 그것은 문화적으로 인지되고 중개된다. 그것은 모순과 갈등을 모두 지닌 사회적 지식 '조직망의 일부'이다.

2. 사회구성주의적 시각: 여기에서 글로벌 위험사회는 자연과학으로 진단된 문제의 글로벌 특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 담론 연합"에서 나온다. 즉, 담론 연합에 의해 글로벌 환경위기를 공식 의제로 설정한다-> 따라서 이 시각에서는 환경운동의 제도화와 네트워크 구성, 초국가적 행위자들의 결성(그린피스, 환경부의 신설, 국가적 국제법과 계약, 환경산업의 호황, 세계 문제의 글로벌 경영을 위한 거대 과학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그리고 이 연합은 항상 강력한 반대 연합의 저항을 물리쳐야 함.



본질주의적, 사회과학적 관점과 구성주의적 관점이 출발점이나 방법론, 근본 가정에서 아무리 서로 대립해도 그들이 내리는 진단의 핵심은 동일-> 두 입장은 글로벌 위험사회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정당화함: 사실주의가 앞의 '글로벌위험'에 강조점을 둔다면 구성주의는 뒷부분 '사회'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다. 구성주의 시각에서는 환경이란 주제의 글로벌 특성이 사회적으로 인지되고 행위에 대한 촉구로 작용하려면 초국가적 행위자들이 담론정치를 미로 관철해야한다. 반면에 사실주의 시각에서 글로벌 특성의 근거는 오로지 객관적인 위협의 자체권력,

확고하지는 않다고 추정되는 자체 권력이다. 사실주의는 생태 문제를 '폐쇄적'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구성주의는 원칙적인 개방성을 강조.



결국 글로벌 위험사회에서 현실은 사람들이 현실구성을 어느 정도 현실을 포함하고 있는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현실 구성이 사회적 실천의 제도화로서 이해된 제도에 가까이 있거나 제도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막강한 결정이나 행동을 할 수 있으며 또 그만큼 더 현실적이 되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지식 사회적으로 조명되고 해체된 본질주의는 전략적이고 권력 지향적이며 행위지향적인 제도주의로 변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위험사회의 역동 속에서 현실 그 자체는 행위 구조로부터 또 일상적으로 되풀이 되는 속달된 결정과 노동으로부터 나오며, 제도적 구성주의를 가지고 구체화된다->결국 글로벌 위험사회의 '자연파괴'에 대한 질문은 '현대사회는 스스로 산출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루는가'의 말로 대체되는 것이다.

*글로벌 하위 정치의 징후와 발생조건, 표현 형태

1. 글로벌 하위정치의 개념 및 발생조건 :

1). 하위 정치의 개념은 정치와 정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현상-> 이는 무언가를 다듬어 만들어내는 정치가 국민국가의 대의제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질수 있음을 시사: 해당; 초국가적 거대 기업, 국제기구나 시민사회운동, 국가의 권력독점을 부수는 테러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불확실성의 매니저들.. 즉, 하위 정치라는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비 국가적 정치의 전 세계적 자체 조직화의 조직에 관심을 돌리게 만들고, 이런 비국가적정치는 모든 사회 영역을 연쇄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경향을 빚.

2). 하위 정치는 직접 정치를 말한다-> 사안별로 개입하고 대의적 의사 결정제도를 통해 정치 결정에 관여하지만 대개는 법적 보장없이 또는 모든 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일을 진행한다. 그런 면에서 세계사회의 하위 정치는 정당들, 국가들, 지역들, 종교들, 정부들, 대기업들과 시민사회운동들의 사안별 연합들을 들 수 있다.

-발생조건-

하위 정치는 정치적인 것의 규칙과 경계를 변화시킴으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 정치를 기존 의무로부터 면제시켜 세계정치의 공간이 더욱 개방적이 되고 새로운 목표와 주제, 관계들에 더욱 쉽게 접근하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국가 정치와 하위 정치가 분리된다 해도, 지극해 정당한 시민사회의 목표를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경계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연합이 가능. 이런 연합은 국내 정치에서 야당이나 경제, 언론이나 유권자들을 상대로 새로운 행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정부에 열어주게 된다.

2. 표현 형태:

1)상징적으로 연출된 대중의 보이콧:

. 1995년 그린피스는 석유회사 셸을 성공적으로 압박하여 낡은 해상 플랜트를 대서양에 침몰시키지 않고 육지에서 처리하게 만들.

.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려는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의 결정에 맞선 핵실험 반대운동의 경우,

정부들과 그린피스 활동가, 온갖 저항집단 간의 글로벌 연합의 자발적 생성.

2) 기후 변화와 하위정치:

기후변화의 글로벌 특성은 세계 문제의 범위와 가능한 조직적 대응, 법적 토대, 세계 경제적 전제와 결과 등과 관련, 불확실성을 산출한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WTO, OECD 같은 일련의 국제기구등이 하위 구조로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처리한다->

예). 2006년 영국정부의 위임으로 작성했고 영국정부가 의기양양하게 제시한 스텐 세계은행 총재의 기후보고서.

. 초국적 석유회사 셸이나 에너지 기업 등 과거의 큰 맞수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녹색외투를 걸치고 있고, 이산화탄소의 경제로부터 벗어날 묘안들을 찾고 있음-> '녹색자본주의'

. 시민단체와 연합, 적극적 기후보호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국가정치의 새로운 고안. 글로벌이란 수식어에 기후보호라는 단어의 조합-> 높은 평판과 큰 책임을 약속하고 힘든 국내 정치에 찌들은 정부 수장들에게 정치 지도자 격으로 부상할 수 있는 전망을 제공-> 영국의 경우 '글로벌 기후 보호' 라는 단어는 '대영제국'이라는 과거의 아련한 황금기에 대한 추억을 보상함.

3) 테러의 하위정치:

테러의 하위정치는 전쟁의 개인화를 뜻한다. 자살 테러범 개인은 골리앗과 싸운 다윗의 극단적 형태이다. 개인은 자신을 대량살상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무의미한 삶에 영웅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결국 테러리즘을 권력의 마약으로 만드는 것은 서구에서 연출된 화려한 공포의 환영이다. 서구 국가가 테러 공격에 대한 언론보도 금지조치를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상상실험

-> 첫째, 테러의 예상위험은 저절로 붕괴, 둘째로 행위의 세계 정치적 공포의 후광도 사라짐.

-> 서구 문명의 중심에서 일어난 테러리스트들의 봉기를 그저 안전 문제로 축소한다면 테러리스트들의 손안에 놀아나 셈이 된다. 테러리즘이 이른바 제3세계에서 누리는 공개적 혹은 암묵적 지지는 테러적 하위 정치가 핵심문제를 세계여론에 부각시키고 경제적 사회화를 저지하는데 가장 부당한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사실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서구로부터 받아들인 것들-과학, 휴대폰, 인터넷, 유행, 국가주권, 이윤추구, 개인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제3세계는 열등감을 느낀다. 자신들을 유린하고 종속시킨 자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구 현대에 대한 증오는 서구 현대가 거둔 일종의 승리의 산물인 것이다. 결국 테러리즘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구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과 서구가 이 세상을 마음대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일종의 대응이다.

-> 이것이 테러의 하위 정치가 세계정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글로벌 맥락이다. 서구가 일차원적 세계화로 정의 문제를 금기시 할뿐만 아니라 소홀이 취급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세상에서, 테러리즘은 저항의 마지막 이데올로기로서 서구 현대에 뒤쳐지고 벽에 떠밀린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암묵적 동의를 얻게 되는 것이다.